

광주시립미술관의 첫 온라인 VR전시 '하정웅컬렉션 하이라이트 I'이 내년 12월31일까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하정웅컬렉션, 집에서 즐기세요”

광주시립미술관, 첫 온라인 VR 전시 진행 작가소개·작품설명 등 오디오 가이드 제공 도미야마 다에코·이우환 등 60여 점 소개

1992년 전국 최초의 공립미술관으로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내년이면 개관 30주년을 맞는다. 다양한 기획전과 시스템 강화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미술관이 처음으로 온라인VR전시를 개최한다.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뮤지엄을 지향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미술관 관람이 제한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획한 전시로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VR 링크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첫 온라인VR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은 시립미술관의 대표 소장품인 하정웅 컬렉션이다. 미술관 개관 직후인 1993년부터 지금까지 기증받은 하정웅 컬렉션은 총 2603점에 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미야마 다에코·이우환·박서보·강연균 등의 대표작 60여점을 선정해 선보인다. 미술관은 앞으로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VR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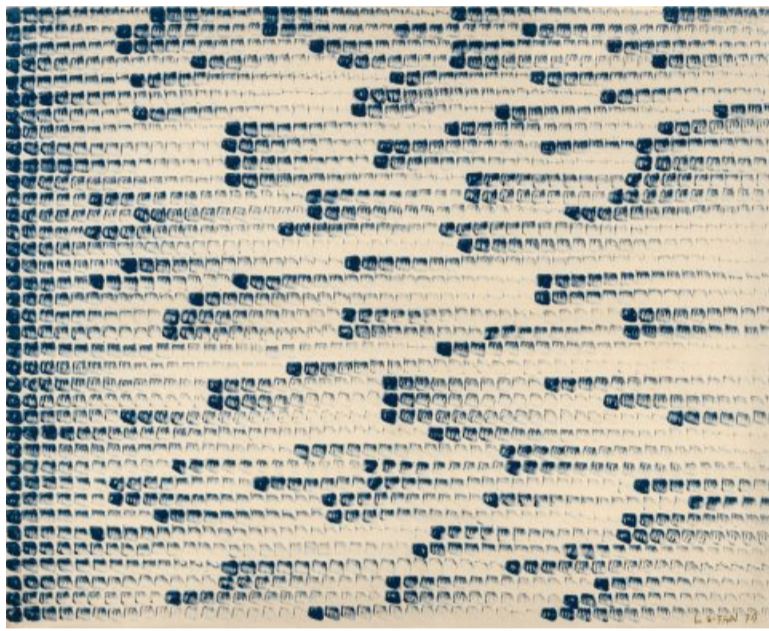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하정웅미술관 전시실을 스캔촬영, 전시작품 이미지를 가상으로 배치했다. 전시구성 및 작가소개, 작품설명이 국영문 자막과 오디오가이드로 제공돼 기존의 온라인 전시영상과는 차별화된 점이 특징이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열리는 하정웅미술관 온라인 VR전시 '하정웅컬렉션 하이라이트 I'전은 하정웅컬렉션을 통해 한국 근현대미술의 주요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하정웅컬렉션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폭을 한층 확장시켜 놓은 것이 특징으로 특히 재일동포 작가의 작품이 다수 포함돼 한국 근현대의 격동기 속에서 분단의 아픔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재일 미술인들의 삶과 예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제 1부 '이산과 망향'에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에 맞춰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과 분단에 따른 차별과 아픔, 조국에 대한 그리움, 염원을 위한 기도 등을 주제로 한 재일교포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전화환의 '재회', 송영옥의 '갈림(귀국선)' 등이 대표적이다.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국제화와 세계화에 진입한 시대의 작품을 만나 2부 '모더니스트의 도전'은 경제성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 세계 미술의 흐름을 수용하고 매체의 새로운 모색 등 도전과 변화를 추구했던



이우환 작 'From Point'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작품들을 만나는 색선이다. 세계 미술계에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이우환의 작품 'From Point'를 비롯해 박서보의 '묘법', 광인식의 'work 81 H' 등을 만날 수 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인권과 평화를 위해 발언했던 작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제 3부 '시대의 증인'은 5월 광주가 잉태한 비판적 현실 인식, 저항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다룬 색선으로 주요 전시작은 일본 작가 도미야마 다에코의 '자유광주', 강연균의 '하늘과 땅 사이 II', 홍성담의 작품들이다. 인권, 평화를 위한 열망을 담고 있는 하정웅 컬렉션의 작품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맞닿아 있어 하정웅 선생이 광주에 기증하기로 결심한 동기가 됐다.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미술 담론과 전개 속에서 새로운 시선을 보여준 '변화와 확산'은 현대미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시선들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주요 작가로는 일본과 유럽에서 활동한 손아역, 독일로 이주한 송현숙 등이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동곡박물관에서 만나는 다양한 꼭두. 〈동곡박물관 제공〉

상여·꼭두로 만나는 옛 장례문화

동곡박물관, 상설전시관 개편...박은용 특별전도

“다양한 꼭두를 만나다.”

지난 2020년 12월 개관한 보문복지재단 동곡미술관·박물관은 '한국의 금관' 등 다양한 기획전과 상설전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문화의 향기를 전하고 있다.

동곡박물관은 2개의 상설전시실을 운영 중이다. 제 1전시관은 고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시대를 망라한 유물 150여점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제2전시관은 사후세계를 기원하며 명복을 빌었던 옛 조상들의 장례문화를 상여와 꼭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은 최근 제 2전시관을 개편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해학으로 승화시킨 옛 조상들의 장례문화를 살펴보고 삶의 위안을 얻어보자는 마음으로 진행된 개편이다.

장례문화의 주제를 이어간 이번 개편에서는 유관부터 아기사여, 120여점 등 기존의 작품과 함께 조선시대 상여 1점과 인물꼭두 70점을 추가로 선보이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떠나는 장사를 위로하고 슬픔을 승화시킨 해학과 아름다운 배움의 미학이 담긴 작품들이다.

인물꼭두는 호위하는 꼭두, 곡예를 하는 꼭두, 시중을 드는 꼭두 등 각각의 역할에 따른 표정과 동작들이 형상화돼 있으며 특히, 극락조 양옆으로 동물을 타고 안내하는 인물꼭두 등 64점이 군상을 이루면서 다양한 형태와 색감의 나무인형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한편 1층 동곡미술관에서는 한국화가 박은용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석현 박은용:전원에 산다'(2022년 2월13일까지)는 '비운의 천재화가', '고독한 농부화가'로 불렸던 박은용(1944~2008)의 작품 세계를 만나는 전시다.

지난 2018년 10주기를 맞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대규모 기획전인 '전시'로 당시 선보이지 않았던 작품을 중심으로 모두 3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또 그가 쓰던 화구 등 유품과 아내 임정숙 여사, 박종석 화가, 조인호 평론가 등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도 준비, 석현의 작품 세계를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다.

미술관과 박물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문의 062-945-009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선조들의 장례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상여.

〈동곡박물관 제공〉

광주문예회관, 국악공연예술 단체 모집...1월5~11일 접수

광주문화예술회관은 2022년 광주국악상설공연 무대에 오를 국악공연예술단체(민간)를 모집한다.

공모는 전통국악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13개 단체를 뽑을 예정이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2022년 1월5일부터 11일까지다. 관련 서류는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지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2022년 2월11일 오후 5시에 발표한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립창극단,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역국악단체 등이 광주만의 색깔을 담은 전통국악과 창작국악, 퓨전국악 등을 선보이는 국악상설공연 내내 공연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문의 062-613-837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왈츠와 랩소디를 만나다

광주시향 신년음악회, 1월14일 전남대 민주마루...박종해 협연

새해를 맞아 왈츠와 랩소디를 만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홍석원) 신년음악회 'Waltz & Rhapsody'가 2022년 1월 14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린다.

2022년에는 코로나 19가 종식되길 바라는 기대와 평화와 행운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획한 이번 공연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 거쉰, 라발스 등의 곡을 들려준다.

1부 첫 곡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연주한다. 이 작품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1867년 프로이센의 전쟁(1866년)에서 참패해 절망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위해 만든 곡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희망을 담은 곡이다. 이어 재즈와 클래식 음악의 결합을 실험한 새로운 형식으로 주목 받은 조지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를 들려준다.

2부는 피아니스트 박종해의 협연으로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2번'을 선사한다. '헝가리 광시곡'은 헝가리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프란츠 리스트가 헝가리 민속 선율을 바탕으로 완성한 곡으로 헝가리 집시들의 민속 춤

곡인 차르다시의 전통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협연자 박종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악과 학사, 하노버국립음악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2018 게자안다 콩쿠르 준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공연의 대미는 라벨의 '라발스'로 장식한다. 변화무쌍한 음색과 리듬이 특징이며, 하프, 플루트, 바이올린 등 다채로운 음색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곡이다.

티켓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관람 8세 이상)이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524-508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피아니스트 박종해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